

10

October 2024
vol. 276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Into the fall



RALPH LAUREN

CHANEL





DIOR

MY DIOR COLLECTION

Yellow gold, white gold, pink gold, black lacquer and diamonds.

Contents

- 08 **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10 **_SELECTION** 소재가 주는 따스함과 다채로운 컬러 팔레트로 선보이는 가을 클래식 룩.
- 14 **_STILL, ON THE GO!** 가나긴 공사 끝에 2021년 늦가을 드디어 베일을 벗은 M+는 외무직업, 그 이상(+)을 품어낸다는 포부를 지녔다. 이런 배경에서 첫 기획전의 주인공이 베이징 출신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귀페이(Guo Pei)라는 점은 놀랍지 않다. 자신만의 오토 쿠티르 언어로 공고히 성을 쌓아온 그녀의 미학이 M+ 컬렉션과 조응한 전시 (Guo Pei: Fashioning Imagination)이다.
- 17 **역사를 탐구하는 창의적 해석**가 반드시 해당 문화권에 물리적으로 머물지 않더라도, 전시 콘텐츠만으로도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대구미술관 2024년 해외 교류전 작가로 외월 사키가 초청됐다는 소식이 유난히 달갑다. 미술관 개인전은 최초인 만큼 '역사를 파고드는 해석'이라고 소개하는 그의 창조적 세계를 만나보면 어떨까(2025년 2월 25일까지).
- 18 **_GET THE LIST** 스타일리시한 당신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잇 아이템.
- 20 **_ETERNALLY REBORN** 올해는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해이자 불가리 창립 1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다.



최고급 소재와 정교한 장인 정신을 담은, 럭셔리 브랜드 랄프 로렌 컬렉션. 랄프 로렌의 최상위 여성 럭셔리 라인인 랄프 로렌 컬렉션은 내면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유행에 얽매지 않는 세련미를 추구한다. 랄프 로렌 컬렉션의 2024 가을 시즌은 시대를 초월한 여성의 감각과 개성이 담긴 타임리스 스타일을 모티브로 완성되었다. 문의 02-3467-6560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 이름 기념해 이탈리아 로마 주얼러 불가리에 서 한국 현대 예술가 3인과 전시를 준비했다. 시간을 넘나드는 영원한 재탄생의 현장.
- 22 **_AESTHETICS OF MODERATION**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를 절제되고 모던한 디자인에 녹여내는 것은 위대한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갖춘 매종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 전통을 계승한 바세론 콘스탄틴 패트리모니가 출시 20주년을 맞이했다.
- 24 **_AUTUMN CLASSIC** 랄프 로렌에서 우아한 여성과 품격 있는 남성에게 제안하는 가을 룩.
- 25 **_URBAN SPORTIVE** 기능성은 물론 우아함과 현대적인 무드까지 겸비한, 남다른 호간의 스타일링.
- 26 **_BEST FOR NOW** 단 하나만으로 잘 갖춰 입은 듯 우아한 스타일을 완성해줄 가을 아우터 셀렉션.
- 27 **_HEEL SO CHIC** 밀라노의 매력적인 슈즈 브랜드 '베네데타 보롤리(Benedetta Boroli)'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한다.
- 28 **_DEAR DIVA** 가끔은 무대 위 주인공처럼. 과장된 실루엣과 맥시멀한 디테일의 룩.
- 36 **_KEEP IT TIGHT** 환절기 스킨케어에 활력을 불어넣을 안티에이징 세럼.
- 37 **_THE SMARTEST, STOP VX2** 세 가지 멀티 고주파(Multi RF)와 어댑티브 DMA 기술을 적용한 트리플라의 스타트 브레이크(STOP VX2)로 완성하는 4주의 기적, 완벽한 V 라인.
- 38 **_EDITOR'S PICK** 환절기에도 최상의 피부 컨디션을 케어해줄 이달의 뷰티템 12.

Style 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에디터 성경민 sjm@chosun.com 윤자경 yjk@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신정임 sj@chosun.com
 디자인 나스컴퍼니 교열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희희 ih5567@chosun.com
 유투브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재판 탁일 인쇄 타라티피에스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퍼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12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PERFECT SH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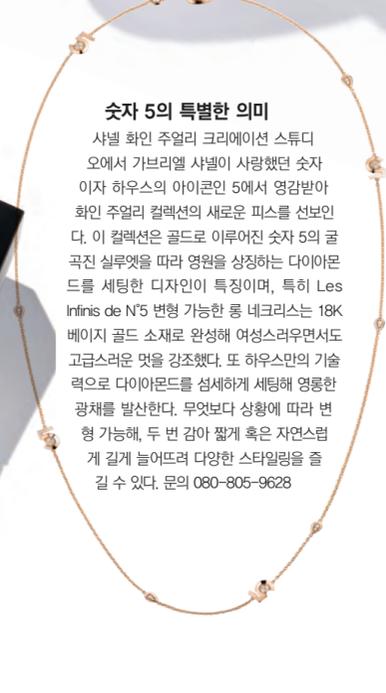
쌀쌀해진 날씨로 옷차림에 변화가 필요할 때 데일리 백으로 스타일링하기 적합한 알프 로렌 펠라 라벨의 RL 펠라 카프 스킨 메신저 백을 소개한다. 다크 라지지 브라운 컬러가 가을, 겨울 날씨와 어울려서 고혹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아이코닉한 브라스 스텝 'R' 클로저로 포인트를 가미해 간결한 실루엣을 완성했다. 이탈리아에서 고급스러운 질감의 펠라 폴 그레이니 카프 스킨으로 제작했으며, 부드러운 카프 스킨 레더 소재의 버클 솔더 스트랩을 포함한다. 2백90만원대. 문의 02-3438-6235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Nail Obsession

가을 네일 컬러 팔레트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르 베르니 187 스피리추얼 2024 F/W 메이크업 컬렉션의 한정판으로 출시한 컬러로, 까멜리아 세라마이드 성분을 함유해 섬세하고 균일하게 발린다. 13ml 4만3천원. 문의 080-805-9638 디올 뷰티 폴랑 드 파리 리미티드 에디션 디올 베르니 #001 30 동태뉴 은은한 진주빛 핑크 컬러로 적약과 피스타치오 추출물이 들어 있어 효과적인 네일 케어는 물론 우수한 지속력을 자랑한다. 10ml 4만3천원대. 문의 080-342-9500 구찌 뷰티 베르니 아 옴글 716 루시 베이비 블루 커버력이 우수해 첫 코트에도 선명한 컬러를 구현하며, 부드러운 네일 브러시 팁으로 손쉽게 바를 수 있다. 10ml 4만4천원. 문의 080-850-0708 포토그래퍼 오현상 에디터 신정임



숫자 5의 특별한 의미

샤넬 화인 주얼리 크리에이션 스튜디오 오에서 가브리엘 샤넬이 사랑했던 숫자 5가 하우스의 아이콘인 5에서 영감을 받아 화인 주얼리 컬렉션의 새로운 피스를 선보인다. 이 컬렉션은 골드로 이루어진 숫자 5의 굴곡진 실루엣을 따라 영원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특히 Les Infinis de N°5 변형 가능한 롱 네크리스는 18K 베이지 골드 소재로 완성해 여성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멋을 강조했다. 또 하우스만의 기술력으로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세팅해 영롱한 광채를 발산한다. 무엇보다 상황에 따라 변형 가능해, 두 번 감아 짧게 혹은 자연스럽게 길게 늘어뜨려 다양한 스타일링을 즐길 수 있다. 문의 080-805-9628



어느 멋진 날, 특별한 축제

에르메스가 <르 몽드 에르메스> 매거진과 함께 혁신과 창작의 정신을 보여주는 키오스크(kiosk)를 서울 예술의전당 음악광장에서 선보였다. 매거진을 통해 에르메스의 다양한 세계를 깊이 있게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컬렉션과 그에 담긴 철학을 살펴보고, 에르메스만의 특별한 감성을 한층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 2024년 테마인 '포부르의 정신(The Spirit of the Faubourg)'으로 가득 채운 팝업 공간에서는 에르메스 페가수스 오리가미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직접 종이접기로 만들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퀴즈 게임에 참여하면 책갈피 등의 기념품을 받아볼 수 있었다. 문의 02-542-6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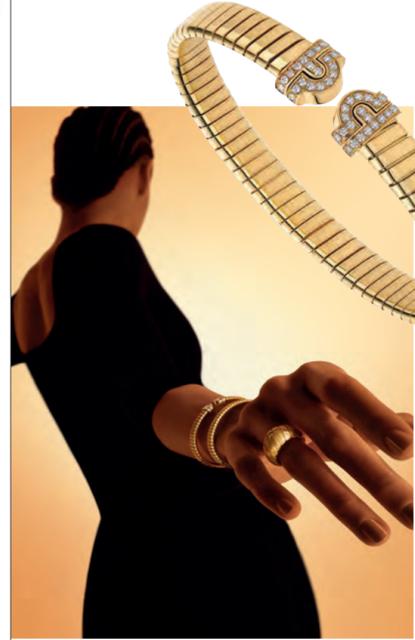
Tiny World

작은 다이얼의 매력.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까르띠에 탱크 아메리칸 워치 미니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골드 케이스에 레드 컬러 엘라게이터 가죽 스트랩으로 포인트를 더했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326 오메가 피계 로열 오크 미니 프로스티드 골드 퀴츠 23mm 프로스티드 골드 소재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디자인의 워치 5천21만원. 문의 02-533-1351 디올 타임피스 라 미니 다이 마이 디올 총 0.32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40개로 제작했으며, 시그니처 로고와 새틴 패턴의 19mm 다이얼, 브레이슬릿이 돋보인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그라프 스파이럴 컬렉션 다이아몬드 워치 총 1.39캐럿 다이아몬드를 더한 지름 19mm의 핑크 머더오브달 다이얼이 눈부신 광채를 선사한다. 2천8백70만원. 문의 02-2256-6810 포토그래퍼 오현상 에디터 신정임



엘로 골드드의 재탄생

불가리 투보가스(Bulgari Tubogas) 주얼리 컬렉션의 데뷔를 알리며 로마 주얼러 불가리가 1950년대부터 특히 소중히 여겨온 귀금속인 엘로 골드의 빛나는 광채를 담은 독창적인 디자인의 16가지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인다. 매끄럽게 연결된 독특한 골드 스트라이프가 인상적인 네 가지 브레이슬릿은 18K 엘로 골드 버전, 현대적인 롬비 버전, 초현대적인 다이아몬드 스타드 장식이 돋보이는 버전 등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했다.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독특한 디자인과 볼륨감으로 단독 착용해도 훌륭하고, 레이어링해도 멋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다. 문의 02-6105-2120



The Comeback of 'Superegg'

당신에게 '아름다운'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 같은 설문 조사 (JP 모건)에서 '건강해 보이는 것이' 동안보다 2배가 넘는 수치(45%)를 차지했다는 점은 여러 맥락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우선 '미'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준이 확장됐음을 알 수 있고, '레드 오션'인 스킨케어 시장에서 '비건 뷰티'의 성장 추이가 돋보이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 비건 뷰티 시장(글로벌)은 2013년 7조원 규모에서 10년 새 24조원으로 3배 이상의 규모로 성장했다. 달걀의 영양소를 식물 성분으로 복제하는 독자적 기술과 헬니스 철학을 담아 뉴욕에서 출발해 미국은 물론 캐나다, 일본 등지에서 호응을 얻은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수퍼에그(Superegg)의 공동 창립자 킴 킴은 지난달 론칭 기념회에서 그저 지각 있는 소비자층의 윤리 의식이 반영된 '선한 화장품'이어서가 아니라 기술이 발전되면서 품질이 좋아진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한국 관계자들이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지금도 전체 시장에서는 불과 5%를 차지하지만 "결국 주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입맛'을 다루는 식문화(비건 푸드)는 쉽게 바꾸기 어렵지만 비건 뷰티는 '인식의 전환'만 있으면 당장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수퍼에그는 주요 백화점 팝업과 네이버 스토어, 공식 홈페이지(superegg.nyc)에서 만나볼 수 있다.



Autumn Shade

가을 무드를 더할 보일 선글라스. (위부터 차례로) 브라운 컬러 렌즈로 빈티지한 매력을 선사하는 보잉 선글라스 72만원대 올리버피플스 by 에실로룩소티카. 문의 02-501-4463. 메탈 프레임에 웨이퍼리 구조로 유니크한 디자인이 특징인 마스크 선글라스 49만원대 토츠. 문의 02-3438-6008. 메탈 소재 스퀘어 프레임에 오렌지 컬러 렌즈로 레트로한 느낌을 연출하는 GV 원 선글라스 가격 미정 지방시. 문의 02-6905-3630. 발렌티노 스타드 장식이 돋보이는 파일렛 스타드 프레임 선글라스 1백15만원대 발렌티노. 문의 02-2015-4655 포토그래퍼 오현상 인턴 에디터 김보민

Romantic Chic

샤넬 2024-25 F/W 레디투웨어는 샤넬 하우스의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도빌을 조명했다. 새벽부터 해 질 녘의 로맨틱한 무드와 컬러를 담아낸 것이 특징. 플랩 백 디자인으로 고급스럽고 가장 샤넬다운 모던한 블랙 컬러로 완성했다. 여기에 샤넬의 상징적인 CC 로고의 골드 체인으로 장식해 은근한 반짝임과 장식적인 미를 부여한다. 부드러운 램 스킨 소재로 여성스러움을 한층 더 부각한 것이 특징. 모던하고 클래식한 의상에 착용하면 포인트를 주며 캐주얼한 복장에 착용해도 잘 어울린다. 샤넬 스몰 플랩 백 고유의 여닫기 편한 스타일로 실용성을 담았다. F/W에 새롭게 선보이는 이 백은 샤넬 공식 홈페이지와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율가를 무드 있는 클래식한 여성으로 탈바꿈하고 싶다면 샤넬 백을 옷장에 들여놓을 것. 문의 080-805-9628



변화무쌍한 날씨와 생활 패턴으로 노화 징후가 나타나 고민하는 이들에게 시세이도의 독자적인 테크놀로지를 응축한 '바이탈 퍼펙션 리프트디파인 레디언스 나이트 컨센트레이트'를 제안한다. 브랜드의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라인을 대표하는 바이탈 퍼펙션의 나이트 전용으로 출시한 이 제품은 리프트다이나믹 4D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밤사이 중력과 노화로 인한 피부 처짐, 탄력 저하, 다크 스팟 등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주는 것이 특징. 여기에 신경 과학적 접근법과 혈액 과학적 접근법을 적용한 리뉴러 테크놀로지+++™로 피부에 화사한 톤은 물론 은은한 광채감을 함께 선사한다. 매일 저녁 잠자기 전, 세안 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팔사를 사용해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주면 무너진 피부 사이클을 회복할 수 있다. 40ml 24만2천원. 문의 080-564-7700

BEAUTY CURATION





실크 소재에 프라다 시그니처 로고를 패턴 프린트한 실크 스카프가 재미있을 것이다.

18K 세드나™ 골드 소재의 케이스 및 다이얼에 레더 스트랩으로 완성했으며, 5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드 빌 프레스티지 41MM 2천만 원대 오메가.



for him Selection

날씨도 마음도 설레는 지금, 가을 남자의 머스트 해브.
PHOTOGRAPHED BY OH HYEUN SANG



에디터 전용인 스타일리스트 임혜영

그레이와 네이비가 그라데이션을 이루는 알파카 혼방 소재 카디건 1백29만원 **이자벨 마랑**.



최근 앙블로 쿼터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로즈 골드 소재의 아이스 큐브 워치인 비크루스 18K 8만 원대 쇼펜.



UVA/UVB 차단 기능이 있으며 옆면을 메탈 로고 템플로 장식한 선글라스 36만5천원 토즈.



부드러운 펠름 플 그레이진 카프 스킨 소재에 RL 로고 클로저로 포인트를 준 RL 펠름 카프 스킨 메신저백. 29.9x21.6x7cm, 2백90만원대 **랄프 로렌 퍼플 라벨**.



18K 매직 골드 소재를 사용했으며, 72시간 파워 리저브에 오픈 하트 형태의 무브먼트를 장착한 스퀘어 밴 유니코 세라믹 매직 골드 6백27만원 **워블랑**.

카드 슬롯 6개와 오픈 포켓 1개로 구성했으며, 플 그레이진 보바인 레더로 이루어진 인스트림 3.0 6cc 카드 홀더. 11x7x0.5cm, 35만원 **몽블랑**.



착용 시 포근하게 감싸주는 캐시미어 소재의 베니 55만원 **에르메스**.



최상급 크로노미터를 인증받았으며, 950 플래티넘 소재로 제작한 오이스터 퍼페추얼 데이-데이트 8천8백63만원 **롤렉스**.



100% 순이끼가 초 소재에 비틀로 2인치를 추가할 수 있는 시스널 앞사리 울트라 프린트 핏트 가격 미정 **폴 스미스**.

직사각형 디테일을 정교하게 레이아웃해 리듬감을 부여하는 옐로 골드 소재의 펠 디올 링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허리 밴드에 달린 핀으로 100% 스텔을 조합할 수 있는 캐시미어 블렌드 조깅 맨츠 1백52만원 **몽블랑 데트 알렉산**.

18K 핑크 골드 비틀과 네이비 블루 텍스처인 케이틀로 완성한 포스텔 브레이슬릿 1천6백84만원 **프레드**.



기동성을 높여줄 멀티휠*과 텔레스코픽 핸들, 파손 없이 열 수 있는 TSA 승인 잠금장치 등 더한 에센셜 트렁크 플러스. 37x80x41cm, 2백만원 **리모와**.



스톤 아일랜드와 협업해 선보인 캡슐 컬렉션의 아이템으로 옆면을 아이코닉한 디올 오벌리크 모티프로 장식한 디올X스톤 아일랜드 B33 스니커즈가 재미있을 것이다.

프라다 02-3442-1830 오메가 02-6905-3301
이자벨 마랑 1544-5114 소파드 02-6905-3390
랄프 로렌 퍼플 라벨 02-3438-6235 토즈 02-3438-6008
에르메스 02-542-6622 워블로 02-540-1356
폴 스미스 1644-4490 몽블랑 1877-5408 롤렉스 02-567-8195
몽블랑 데트 알렉산 0030-8321-0794 디올 파인주얼리 02-3280-0104
디올 맨 02-3280-0104 프레드 02-514-3721 리모와 02-546-3920



TOD'S KOREA INC. 02.3448.5501

TOD'S

화사함을 더해줄 옐로 컬러에 파베기 패턴으로 완성한 칼리니트 1백39만원 **이자벨 마랑**

앞면 카드 수납 칸 4개와 상단 수납 칸 1개를 갖춘 레오파드 프린트 폴리아크릴 카프 스킨카드 홀더. 10×7×0.5cm, 44만원 **둘레엔가버나**

1백배 세팅한 크라운 로즈골드체인, 1.5캐럿 화이트 다이아몬드, 0.27캐럿 카보숑 컷 루비를 세팅한 크라운이 돋보이는 레인드 네이플 8918 6천2백84만원 **브레게**

18K 화이트 골드 오벌 케이스에 약 0.99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백17개를 세팅한 배젤과 다이얼, 0.27캐럿 카보숑 컷 루비를 세팅한 크라운이 돋보이는 레인드 네이플 8918 6천2백84만원 **브레게**

다이아몬드를 향상한 골드 유즈 체인이 특징인 나파 가죽 소재의 다이아몬드 털다플렛 1백21만원 **지아쑤**

유니크한 무드를 자아내는 컬러 패턴과 볼드한 템플 디자인의 재생 아세테이트 소재 선글라스 64만원 **플로에 by 케어림 아이웨어**

그래프 하우스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의 패시를 각진 면으로 재해석한 로즈 골드 소재의 로렌스 그래프 시그니처 밴드 2.3mm 2백77만원 **그래프**

바라운 울의 아메이스트 소재에 셀린느 로고를 더한 헤이 슬러피는 57만원 **셀린느 바이 에디슬리먼**

for her Selection

소재가 주는 파스함과 다채로운 컬러 팔레트로 선보이는 가을 클래식 룩. PHOTOGRAPHED BY OH HYEUN SANG

2.56캐럿 로돌라이트 가넷 1개와 0.32캐럿 라운드 다이아몬드 8개를 세팅해 손목을 화려하게 빛내줄 18K 핑크 골드 세팅 보헤미안 로돌라이트 더블 모터브 밴글 1천만원대 **부쉐론**

18K 로즈 플레이팅 화이트 골드에 약 14캐럿의 프레지오라이트 2개와 약 1.5캐럿의 화이트 다이아몬드 76개를 세팅한 누도 두아 예 무아 프레지오라이트 이어링 가격 미정 **포렐라토**

광택감이 느껴지는 페이턴트 가죽과 수공예 깃털로 완성한 애프리콧 컬러의 핫가죽 미정 **프라다**

올리브 컬러 카프 스킨 소재에 골드 메탈 로에베 로고와 정인펠트 71만원대 **로에베**

체크 패턴의 울 소재에 A라인 컷으로 모던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는 할레 스커트 가격 미정 **로피아나**

스타일리스트 임태영 에디터 산정민



패딩 기법으로 실루엣에 볼륨감을 더한 스웨이드 소재의 아르카디 패딩 스웨이드 탑 핸들백 22×10.5×7.5cm, 3백75만원 **미우미우**

이자벨 마랑 02-516-3737 **둘레엔가버나** 02-3442-6888 **스와로브스키** 02-1522-9065 **브레게** 02-6905-3571 **샤넬** 080-805-9628 **지미추** 02-3479-1837 **케어림 아이웨어** 02-517-6060 **그래프** 02-2256-6810 **에르메스 워치** 02-542-6622 **셀린느 바이 에디슬리먼** 1577-8841 **프라다** 02-3442-1830 **부쉐론** 02-3277-0148 **포렐라토** 02-3143-9486 **미우미우** 02-541-7443 **로에베** 02-3479-1785 **로로피아나** 02-6200-7799



VIDIVICI



중추절(中秋節) 연휴를 틈탄 홍콩 문화 예술 산책

Still, on the Go!

언젠가부터 홍콩행은 늘 '아트 워크'가 열리는 기간에 이뤄진 것 같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 홍콩이 열리는 3월, 안 그래도 인구밀도 높은 복잡한 도시가 한층 더 뻘뻘하게 느껴지는 이 시기에 뾰족뾰족 솟아 있는 마천루 사이로 뛰어다니면서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던 나날. 팬데믹으로 수년에 걸친 공백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처음엔 갑작스러운 휴가라도 받은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이듬해에는 그 '깡판'의 구간이 슬슬 그리워졌다. 어느새 단골처럼 느껴지는 레스토랑의 맛난 메뉴들이 아른거리고, 번잡한 도심 한가운데서 트램을 타면 홍콩섬에서 제일 높다는 빅토리아 피크에 올라가 눈부신 풍경을 한눈에 담은 스트레스 해소책도 이따금씩 뇌리를 스쳤다. 언뜻 좁다랗게 얽혀 있는 미로 같지만 웬만해선 택시를 탈 필요 없이 도보로 돌아다닐 수 있는(곳곳에 뻗어 있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도움으로), 겨우 익숙해진 듯했던 특유의 지름길은 제대로 기억해낼 자신이 없어졌지만 말이다.

미식과 풍경, 그리고 매력적인 골목을 품은 언덕길에 더해 가장 그리웠던 건 아무래도 '작지만 강한 허브 도시'로서의 기억이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발품'의 고통을 쉽게 잊게 해주는 아담한 규모에(홍콩섬만 따지자면 서울의 2할 정도), 그런데도 놀랍도록 다면적이고 모순적인

매력을 지닌 터라 양과 결집 벗기듯 차츰 애정을 쌓아 올린 도시이기도 하다. 잘 알려졌듯 홍콩은 1세기 반 넘게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됐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동서양의 혼혈이로서 묘한 정체성을 지니게 됐는데, 지리적 위치와 면세 지역의 이점을 등에 업은 금융과 무역의 허브였지 문화적인 도시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심지어 '문화의 사막'이라는 별명도 지니고 있었는데, 2013년 스위스 산 페이 브랜드인 아트 바젤이 홍콩으로 진출한 것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투자와 콘서트들의 후원이 이어지며 점차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실제로 미술관이든, 콘서트홀이든, 복합 공간이든 쟁쟁한 경쟁력을 갖춘 결과물을 꾸준히 내놓았다. 그래서 팬데믹이 휘몰아치기 전에는 해마다 춘삼월이 가까워지면 올હે는 또 어떤 새로움을 맛드려질지 내심 기대하게 됐고 말이다. 홍콩의 봄이 다시 열린 지난해, 가장 반가웠던 존재는 아시아 최고의 비주얼 아트 센터를 표방하는 M+였다. 기나긴 공사 끝에 2021년 늦가을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하늘길의 제약이 심했던 터라 필자를 포함한 대다수 해외 방문객들에게는 첫 만남이었다. 마침내 마주한 M+는 건축의 오라, 그리고 일본의 스타 작가 구사마 야요이(Yayoi Kusama) 회고전을 내세워 대중의 심리를 성공적으로 공략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의 홍콩은 결코 예전 같지 않다

- 1 구룡반도에 건설한 시주중 문화 지구(WKCD)의 핵심 랜드마크인 M+에서 본 홍콩섬.
- 2 홍콩섬 남쪽의 왕척항에 위치한 벨기에 갤러리 악셀 페르포르트(Axel Verwoerd) 전시 공간.
- 3 홍콩 펠리스 뮤지엄에서 열린 <The Adorned Body> 전시. 파리 장식미술관의 협업으로 이뤄진 기획전이다.
- 4 M+가 개관 3년 만에 처음으로 패션과 현대미술의 대화를 시도한 기획전인 <Guo Pei: Fashioning Imagination>이 열리고 있다.
- 5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로 유명한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이오밍 페이(I. M. Pei) 전시 풍경. Installation view of I. M. Pei: Life is Architecture, 2024 Photo_Wilson Lam Image courtesy of M+, Hong Kong
- 6 과거 섬유 공장을 운영했던 기업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아트 공간 CHAT 건물 외관.
- 7 중추절 분위기가 물씬 나는 구룡반도의 시장 풍경 ※ 1-4, 6, 7 이미지 Photo by 고성연



는 시선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특히 2024년 아트 주간, 그러니까 지난봄의 홍콩은 전반적인 미술 시장 침체와 궤를 같이해 활기가 덜했다. 그런데 차분함과 설렘이 공존하는 듯한 홍콩의 울가를 풍경은 꽤 참신했다. 페이 자체의 실적과는 상관없이 과열된 느낌이었던 서울의 초가을 미술 구간을 쥐고 나서일까? 게다가 현지인들도 잠시 숨을 고르고 달 감상과 월병 먹기를 즐기는 중추절(中秋節)의 낭만이 깃들어서인지 활기가 흘렀다. 구룡반도 M+에서는 아시아인으로 오토 쿠티르 업계의 주목을 받아온 패션 디자이너 귀페이(Guo Pei)의 전시 개막 행사로 셸림과 문화 예술계 인사가 출동한 갈라가 열렸고, 홍콩 센트럴 지구에서는 새 랜드마크인 '더 헨더슨 빌딩'에서 모네, 고흐와 나란히 김환기 작품이 경매에 부쳐지기도 했다. 인근의 갤러리 하우저엔워스 홍콩에는 내년 서울에서(APMA)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인 미국 작가 마크 브래드퍼드의 전시와 더불어 그가 참여하는 현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적어도 필자가 아는 홍콩의 지인들은 대부분 휴일에도 일하면서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마치 '문화 예술 허브로서의 입지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피로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시각에서도 역시 이들은 참 부지런히 산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달리 홍콩에서는 중추절 당일이 딱히 휴일도 아니다(다음 날이 공휴일로, 직장인들은 오후쯤 일찌감치 귀가해 가족과 저녁을 먹고, 온갖 불빛이 마천루를 휘황찬란하게 감싸는 야경 속 행사를 즐긴다). 필자도 낮에는 M+에서 온갖 전시를 섭렵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저녁에는 스타 페리를 타고 센트럴 지구로 향했다. 1천원도 안 되는 펀도 요금을 내고 단 선상에서 홍콩 최고층 건물인 리즈 칼튼 호텔의 파사드를 수놓은 중추절 축하 메시지를 보노라니 문득 한 저자가 쓴 책이 떠올랐다. 그 제목처럼 '잊을 수 없는 도시'로서 홍콩의 매력이 부디 유지되기를 바라본다. 글 고성연

귀페이(Guo Pei), <Fashioning Imagination>展

예술혼 담긴 바늘땀이 빛어내는 쿠튀르의 미학

M+는 런던의 테이트 모던,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그리고 서울 청담동의 송을을 설계하기도 한 세계적인 건축가 피에르 드 피롱과 자크 헤어초크가 이끄는 HdM이 맡아 일찌감치 화제가 된 프로젝트다. 구룡반도 서쪽의 매립지에 야심 차게 건설한 시주중 문화 지구(WKCD)의 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정말로 '팬텀'에 미술관을 세우는 일인지라 "처음엔 약간 길을 잃은 느낌이었다"고 지난해 홍콩에서 만난 피에르 드 피롱이 털어놓기도 했다. 기나긴 공사 끝에 2021년 늦가을 드디어 베일을 벗은 M+는 외국인의 발길이 거의 없던 시기에도 15개월 만에 3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었다. 전시 공간 규모만 17,000㎡(약 5천1백 평)에 이르는 이 새로운 랜드마크는 '뮤지엄, 그 이상(+)'을 품어낸다는 포부를 지녔다. 그래서 현대미술, 디자인, 패션, 영화 등 다양한 범주를 아우르는 '비주얼 아트 센터'를 표방한다. 이런 배경에서 개관 3년 만에 '패션과 현대미술의 대화'를 시도한 첫 기획전의 주인공이 베이징 출신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귀페이(Guo Pei)라는 점은 놀랍지 않다. 자신만의 오토 쿠티르 언어로 공고히 성을 쌓아온 그녀의 미학이 M+ 컬렉션과 조응한 전시 <Guo Pei: Fashioning Imagination>이다.



귀페이(Guo Pei, b. 1967)는 오토 쿠티르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지만 중화권과 구미 지역에서는 명성 높은 '브랜드' 그 자체인 패션계 거성이다. 중국의 궁중 자수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그녀의 쿠티르 패션은 미국 팝 스타 리한나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매해 봄 열리는 패션 자선 행사 '멧 갈라(MET Gala)'에서 2015년 입은 노란색 드레스로 널리 알려져 어찌던 이 사건을 '해외 토크'나 패션 잡지에서 접한 이들도 있지 않을 까 싶다. '중국'이 테마였던 그해 귀페이가 2년에 걸쳐 공들여 준비했다는 이 드레스는 뒷자락이 계단을 온통 뒤덮을 정도로 길고 웅장한데, 원래 무게가 45kg에 이르렀다고 한다(이번 M+ 전시장에서는 25kg짜리 버전으로 선보이고 있다). 일부러 여성의 강한 힘을 상징하고자 했다는 이 드레스는 호수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종종 멧 갈라 역대 의상에 꼽힌다. 귀페이는 이듬해 1월 파리 오토 쿠티르 무대에 데뷔를 했고, 2016년 미국 시사지 <타임>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목록에 올랐다. 이미 중국 여배우들이 그녀의 옷을 입고, 2008 베이징 올림픽 공식 행사 의상(여성용)을 제작한 톱 디자이너였지만 세계적인 주목은 다른 차원의 얘기다. '패션'이란 개념이 별로 없던 당시 베이징에서 그저 드레스 만드는 게 좋아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30대(1997년)에 접어들며 자신의 아틀리에(로즈 스튜디오)를 낸 이래 섬 없이 달려온 창조적 여정이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 1 9월 중순 M+ 갤러리와 자선 경매 행사에 참석한 귀페이(Guo Pei).
- 2 귀페이의 '삼사라(Samsara)'(2006)를 배경으로 설치된 이광호 작가의 작품. Photo by 고성연
- 3 <Guo Pei: Fashioning Imagination>이 열리고 있는 M+.
- 4 리한나가 착용해 화제를 일으킨 귀페이의 '1002 Nights' 컬렉션이 보인다 (오른쪽). Photo by 고성연
- 4 Installation view of Guo Pei: Fashioning Imagination, 2024 Photo_Wilson Lam Image courtesy of M+, Hong Kong
- 5 귀페이 전시의 색선 4에서 선보인 'Elysium' 컬렉션 드레스 'The Gold Boat'(2018). © Guo Pei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 6 Installation view of Guo Pei: Fashioning Imagination, 2024 Photo_Lok Cheng Image courtesy of M+, Hong Kong
- 7 자선 경매에서 선보인 귀페이의 드레스. Charity auction conducted by top auctioneer Danielle So at the M+ Gala 2024 Image courtesy of M+, Hong Kong

게 답하며 '패션의 예술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열정을 바쳐온 분야도 엄연히 동시대 미술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알렸다. 사실 귀페이의 작업 영상이나 상세하기 그지없는 드레스의 면면을 보면 '예술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기가 힘들다. 첫 쿠티르 컬렉션인 '삼사라(Samsara)'(2006)를 예로 들면 은은한 금빛 자수가 놓인 이 황홀한 드레스를 만드는 데 무려 5년 시간을 들였다고. 그녀는 자신에겐 이런 작품에 함께 영혼을 갈아 넣는 수많은 장인들이 협력자로 있다면(로즈 스튜디오에서는 5백 명 가까운 장인이 일한다), 순수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를 상장하거나 딱히 투자를 받을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M+ 전시에는 삼사라를 비롯해 수십 년의 여정을 채운 귀페이의 컬렉션과 더불어 주제에 따라 맥락이 맞는 회화나 조각, 오브제 등을 M+ 소장품에서 병치한 구도를 택했는데, 그녀 자신은 과연 어떤 '조함'이 마음에 들었는지 궁금했다. 첫 색선인 'The Joy of Life'에 전시된 중국 작가 류에(Liu Ye)의 귀여운 소녀 그림이 '달은 풀'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귀페이의 선택은 마지막 색선인 'On Dreams and Reality'에서 삼사라 컬렉션과 병치된 이광호 작가의 검은 선으로 영인 카리스마 넘치는 조각 작품과의 어우러짐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했다(릴 서비스'가 아니라 그랬다). 통역으로나마 얘기를 나누다 보니 사랑스러운 여유로움과 더불어 기개와 배포가 넘다 그녀를 가리켜 어쩌서 (공정적인 의미에서의) '베이징 스타일'이라고도 하는지 알 수 있을 듯했다. 글 고성연



크리스티 홍콩(Christie's Hong Kong)의 새 보금자리

The State-of-the Art Space for Collecting

홍콩의 아트 신에는 화려한 아트 페어 풍경이나 동시대 콘텐츠를 다양하게, 그리고 빠르게 포용하는 미술관, 내로라하는 메가 갤러리들의 전시 공간을 보는 것만큼이나 흥미로운 플랫폼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경매 시장이다. 크리스티(Christie's), 소더비(Sotheby's), 필립스(Phillips) 같은 글로벌 경매 회사들이 진출한 홍콩에서는 '뉴스로 전해질 만큼 고가의 작품이 빈번하게 거래된다. 지구촌에 드러운 경기 침체 여파와 미술 시장의 경기 사이클 등으로 예전 같지 않다지만 경매 브랜드들은 홍콩에서 통 큰 투자를 단행하며 '업그레й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크리스티 아시아 태평양 본사가 지난 9월 중순 홍콩 센트럴 지역의 새 랜드마크로 떠오른 더 헨더슨(The Henderson) 빌딩으로 확장 이전하며 늘 전시와 경매를 열 수 있는 전천후 공간을 선보였다. 지난달 26일, 27일 새 보금자리에서 진행된 크리스티의 개관 경매는 빈센트 반 고흐, 클로드 모네, 자오우키, 김환기 등의 작품을 하이라이트 작품으로 내세웠는데, 낙찰률 92%로 한화 2천억원이 훌쩍 넘는 판매 총액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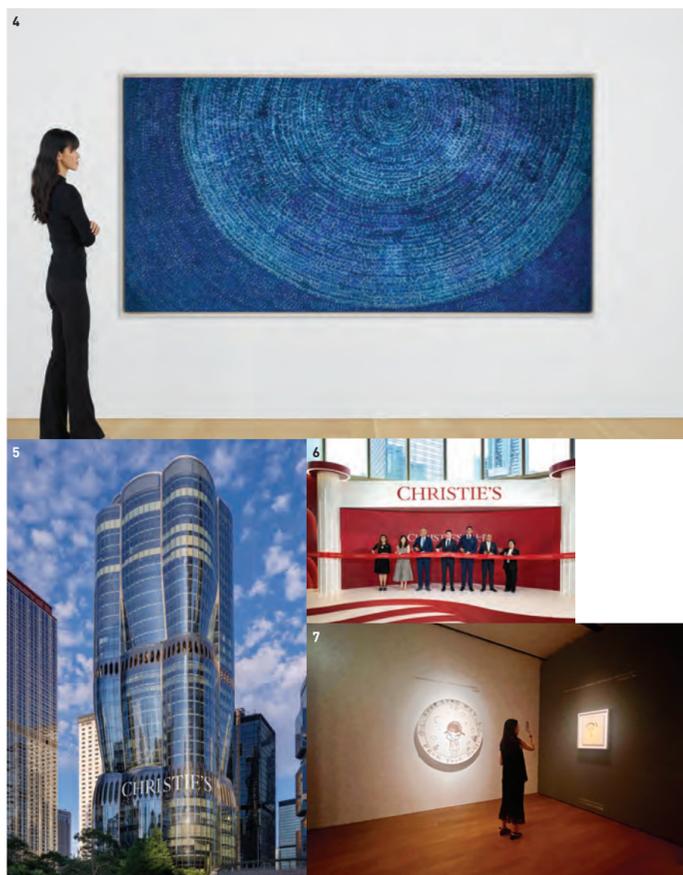


아시아 금융 허브라는 명성에 걸맞게 홍콩 센트럴 지역은 매끈한 마천루가 저마다의 결대로 겹쳐 있는 듯 하면서도 질서를 이루는 묘한 도시 풍경을 선사한다. '빌딩 숲'을 수놓는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이름도 쟁쟁하다. 최첨단 신축 건물로 요즘 화제 물이를 하고 있는 더 헨더슨(The Henderson)은 우리에게도 DDP로 알려진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가 설계를 맡았는데 마치 '이게 미래형 건물이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하다. 외관을 보자면 '홍콩관'이라고도 불리는 도시의 상징 같은 보하니아(Bauhinia)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이 건물은 낮과 밤에 받는 인상이 사뭇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레도 안팎에서 매끈한 유선형 디자인이 곳곳에서 우아한 메시지를 드러내 자하 하디드 특유의 건축 언어를 느끼게 한다. 현재 홍콩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환경 친화적인 건물로 꼽힌다고 한다. 크리스티 아시아 태평양 본사가 이전하고, 크리

스티 홍콩의 프리뷰 전시와 경매가 3백65일 열리는 '새 집'으로 삼으면서 세계 곳곳에서 손님들을 자신 있게 초청할 만하다. 크리스티는 이 건물 4개 층(6~9층)을 쓰는데, 면적으로는 약 4,645㎡(약 1천4백5평)에 이르며 경매장, 갤러리(전시 공간), 고객 전용 공간과 사무실, 컬렉팅을 위한 원스톱 허브 등으로 이뤄져 있다. 예전에는 본사를 알렉산드리아 하우스에 두고 경매는 홍콩 간빈센 센터에서 주로 진행했는데, 자체적으로 '판을 펼칠 수 있는 전천후 플랫폼이 생긴 셈이다. 크리스티 홍콩의 새 보금자리는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에서 설계를 맡은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하지만 기능과 디자인 면에서도 관련도가 높다. "천장이 높고 우리가 쓰는 층에 기둥이 없는 공간은 마치 미술관 같은 느낌을 줍니다." 프랜시스 벨린(Francis Belin) 크리스티 아시아 태평양 총괄 사장은 이렇게 말하며 "화려한 디자인보다 작품이 빛나도록 해주는 전시 공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6층과 7층에는 특별 크레인이 있어 대형 작품을 운반할 수 있고, 벽과 공간을 조절해 다양한 형태의 전시가 가능하며, 전시 공간의 밝기도 작품 특성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고. '개장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크리스티 홍콩의 개관 경매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뜨거운 관심이 몰렸다. 프리뷰(전시)에만 1만2천8백40여 명의 고객이 방문했고 지난 9월 26일, 27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경매 생중계는 6백20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그중에는 20~21세기 미술 이브닝 경매에서 김환기 화백의 1971년 작 전면 점화 '9-XII-71 #216'도 포함돼 있었는데, 5천6백3만5천 홍콩달러(한화 약 95억5천만원,

1 더 헨더슨에 아시아 태평양 본사를 확장 이전한 크리스티. 2 크리스티 홍콩 경매장에서 약 3백97억원에 판매된 클로드 모네의 '수련'. 3 크리스티 홍콩 9월 26일 이브닝 경매로 진행된 'AU BAK LING' 중국 도자기 컬렉션 경매는 낙찰률 100%를 기록했다. 4 9월 26일 열린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김환기 화백의 1971년 작 '9-XII-71 #216'가 약 95억5천만원에 판매되었다. 5 친환경적인 '더 헨더슨' 빌딩 외관. 6 확장 이전한 크리스티 홍콩 개관식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 ※1~6 CHRISTIE'S IMAGES LTD, 2024 7 크리스티 홍콩의 개관 경매를 위한 프리뷰 전시장 모습. Photo by 고성연

구매자 수수료 포함)에 판매되며 빈센트 반 고흐, 클로드 모네, 자오우키에 이어 낙찰가 '톰 4'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이성자의 1963~65년 작 '숨겨진 나무의 기억'들이 1천5만5천 홍콩달러(한화 17억4천만원)에 팔리며 작가 최고가를 경신했다. 20~21세기 미술 부서 헤드 크리스티안 알부(Cristian Albu)는 "한국의 '국보'인 김환기를 비롯해 최고 작가들의 작품을 개관 경매에서 선보일 수 있어 기쁘고 그러기 위해 정말 애썼다"고 만면에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하지만 사실 미술 시장에서 한국 작가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엄격하고 신중한 것다가 요구되는 글로벌 경매에 오르는 이들은 대동소이하기 하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다음은 뭐지?' 그리고 '(시장에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누가 평가절하되어 있지?'를 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홍콩에 다양한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자유롭고 유연한 플랫폼이 생긴 만큼, 한국 미술을 비롯한 아시아 미술을 둘러싼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질지 기대가 된다. 글 고성연



〈와엘 샤키(Wael Shawky)〉_대구미술관

역사를 탐구하는 창의적 해석가

여행을 할 때 익숙함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느끼는 반가움과 편안함도 좋지만 가끔은 낯선 환경에서 스스로를 옥죄던 틀에서 벗어나거나 시야를 뿌옇게 하던 렌즈를 깨는 경험은 사고의 각성제가 되기도 한다. 비록 짧더라도 나름 밀도 있게 다른 문화권을 경험할 수 있는 여정도 때로는 그런 선물 같은 시간을 선사한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관광에서는 별로 느끼지 못했던 자극과 감동을 두바이 문화 예술 기행, 샤르자 비엔날레에서 맛닥트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이집트 국가관을 맡기도 한 와엘 샤키(Wael Shawky)라는 작가를 접하고 차츰 발견하게 된 것도 그런 여정의 수확이었고 말이다. 반드시 해당 문화권에 물리적으로 머물지 않더라도, 전시 콘텐츠만으로도 '계기'는 될 수 있다. 그래서 대구미술관 2024년 해외 교류전 작가로 와엘 샤키가 초청됐다는 소식이 유난히 달갑다. 국립현대미술관, 바라캇 컨템포러리 등에서 일부 선보인 적이 있지만 미술관 개인전은 최초이니 '역사를 파고드는 해석가'라고 소개하는 그의 창조적 세계를 만나보면 어떨까(2025년 2월 25일까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다. 얼마든지 이긴 자들의 입맛에 맞게 뒤돌려거나 과장, 혹은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이집트 출신 작가 와엘 샤키(Wael Shawky, b. 1971)는 승자의 왜곡을 직접적으로 꺼내지는 않더라도 "기록된 역사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품은 채 역사를 들여다보며 새로운 시각의 해석을 시도한다. 와엘 샤키의 작품을 유럽 미술관이나 비엔날레에서 접했을 때도 느꼈지만 여기서 우리는 어쩌면 상당히 편향된 관점이나 세계관을 저도 모르게 품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볼 법하다. 유럽인이 자기들에게 가까운 쪽을 근동, 먼 쪽을 중동, 극동이라고 부르는 표현법을 그대로 쓰고 있지 않은가. 물론 자신의 문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무조건 환날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중동이 역사의 중심을 달리해 스스로를 '중양(中洋)'이라고 부르는 세계관도 존재한다는 다양성의 구도를 무계중심을 유지하면서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와엘 샤키는 스스로에 대해 어떤 주제에 신성한 창의성을 불어넣는 식으로 그저 (연구를 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translator)일 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주입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물론 이집트 우라비 민중 혁명을 와해시킨 영국군의 폭격을 둘러싼 서사를 담은 <드라마 1882>를 선보인 베니스 비엔날레 이집트관의 사례처럼 '해석의 가능성'을 위한 이슈 계기는 전제를 깔고 말이다. 그렇게 정교하게 재구성하고 창의적 해석을 덧댄 작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는 회화, 드로잉, 조각, 설치, 음악 등 다양한 매체를 다루는데, 이런 요소들이 특유의 스타일과 감성으로 버무려진 '영상'이야말로 그의 예술 세계를 담아내는 총체적인 그릇이 아닌가 싶다. 영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집트 문화 예술계의 계보를 잇고 있는 총아답다. 대구미술관이 처음으로 영상 분야의 커미션 작업으로 함께한 와엘 샤키의 신작 영상 <러브 스토리> 시리즈에서도 볼 수 있지만 신비롭고 색감 고운 배경에 특유의 인물을 '반전' 처리한 영상에는 묘하게 시신을 잡아끄는, '서정시' 같은 심미적 오라가 있다. 그런데 반전 필름을 사용하는 방식도 그렇지만, 이번 대구미술관 전시에도 선보였듯 전문

1, 2 <러브 스토리(Love Story)>, 2024, 4채널 비디오 설치, 컬러, 사운드, 10분 9초, 8분 4초, 8분 41초, 7분 44초. Commissioned by Daegu Art Museum, courtesy the artist and Barakat Contemporary 3 대구미술관 2024년 해외 교류전 작가로 초청되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전시를 보려 방한한 와엘 샤키(Wael Shawky). 전시는 내년 2월 25일까지. 4 <알 아라바 알 마드푸나 >은 상이집트(Upper Egypt)에 위치한 마을 이름을 딴 작품으로, 2000년대 초반 작가가 그 지역을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했다. 작품은 총 3부작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2012년 제작한 첫 번째 편을 선보인다. 이미지 제공 대구미술관 Courtesy the artist 5 <나는 새로운 신전의 찬가(am Hymns of the New Temples)>, 2023, 단채널 4K 비디오, 컬러, 사운드, 55분 Copyright 2023, Wael Shawky; Ministero della Cultura; Parco Archeologico di Pompei (in the context of the program Pompei Commitment, Archaeological Matters)

적인 연기를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배우로 쓴다든지(알 아라바 알 마드푸나 I), 세라믹 도자기 인형 탈을 쓴 배우들을 등장시킨다든지(나는 새로운 신전의 찬가) 하는 그만의 방법론은 사실 명확한 의도를 담은 결과물이다. 사람의 얼굴이나 표정 대신 스토리와 주변 풍경에 집중하도록 만든 일종의 장치로 사용된 것이다. 실제로 역사와 신화, 허구와 실재를 넘나드는 폭넓은 주제와 고문헌에서나 볼 수 있는 난해한 용어를 감안하면 관객들은 그가 빛어내는 화면에 집중을 꽤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의외로 우리 전에 동화와 구전설화(누에 공주, <금도끼, 은도끼>, <토끼의 재판>)를 판소리로 재해석한 작품인 <러브 스토리>보다 고대 이탈리아 도시 폼페이를 배경으로 한 신화-얘기를 담은 55분짜리 영상 작품 <나는 새로운 신전의 찬가>를 끝까지 보는 관람객이(어린아이들까지) 은근히 많았는데, 이런 몸담은 와엘 샤키가 말했듯 결국 인류의 삶에는 초국가적 정체성과 여러 문화를 관통하는 보편성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게 아닐까. 그에게 '타 문화'를 잇는 연결자라는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주고 싶다. 글 고성연

Get



BVLGARI
고대 로마 주화에 새겨진 곡선형 문자에서 영감을 받아 옐로 골드 베젤에 더블 로고 인그레이빙을 더했다. 세 가지 골드 소재의 유연한 브레이슬릿이 돋보이며,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밀한 인덱스로 섬세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불가리 불가리 투보가스 워치 6천1백80만원 불가리. 문의 02-6105-2120

The



CELINE BY HEDI SLIMANE
전면의 트리움프 메탈 잠금장치가 눈길을 사로잡으며, 두 가지 컬러의 카프 스킨 소재가 시크하면서도 감각적인 무드를 배가하는 딥 가란스 백 바이컬러 페이먼트 카프 스킨 가격 미정 셀린느 바이 에디슬리먼. 문의 1577 8841

List

HERMÈS
엽과 뒷부분에 버클 장식으로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주었으며, 아이코닉한 H 컷아웃 디테일이 특징인 카프 스킨 소재의 부츠 3백79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스타일리시한 당신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잇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CHANEL
체인에 가미한 상징적인 CC 로고가 우아한 베이지 컬러의 램 스킨 소재와 조화를 이뤄 고급스럽고 패셔너블한 맛을 배가하는 플랩 백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TIFFANY
(위부터 차례대로)
총 797캐럿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옐로 골드와 플래티넘 소재로 완성한 잔 슬림버제 바이 티파니 나인티 투 스톤 네크리스, 총 1.14캐럿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볼드한 디자인이 특징인 18K 옐로 골드와 플래티넘 소재의 잔 슬림버제 바이 티파니 식스틴 스톤 링 모두 가격 미정 티파니. 문의 1670-1837

AP BEAUTY
피부 특수 케어에서 유래한 독자 개발 특허 성분 'PDRN'과 '엑소인(EXONYNE)'의 결합으로 즉각적인 리페어와 압도적인 리프팅 효과를 선사하는 듀얼 리페어 리프트 크림 50ml 41만5천원 에이피뷰티. 문의 080-023-5454



아이스틴 김보민



LOEWE
벨트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된 유려한 곡선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베지터를 태닝 카프 스킨으로 제작한 갈라 샌들 90 2백60만원 로에베. 문의 02-6905-3470

DIOR JOAILLERIE
(위부터 차례대로) 아이코닉한 캐나쥬 그래픽 라인이 우아하면서도 정교한 맛을 배가하는 화이트 골드와 옐로 골드 소재의 마이 다울 링,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핑크 골드 소재의 마이 다울 이어커프,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핑크 골드 소재의 마이 다울 링 모두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문의 02-3280-0104 에디터 윤자경



Eternally Reborn

올해는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헤이자 불가리 창립 1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다. 이를 기념해 이탈리아 로마 주얼리 불가리에서 한국 현대 예술가 3인과 특별한 전시를 준비했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영원한 재탄생의 현장.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로마의 하이 주얼리 불가리는 1884년 창립된 이래 1백40년간 끝없는 혁신과 진화를 토대로 창의성을 향상시켜왔다. 이러한 불가리의 의미 깊은 여정은 늘 놀라움을 선사하는 불가리의 작품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2024년 불가리는 영원한 도시 로마의 빛을 담은 오랜 걸작을 통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로 연결하며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바로 귀중한 불가리 헤리티지 컬렉션 중 23개의 주요 마스터피스들을 서울에서 소개하는 것. 이탈리아 로마 콘도티 거리 10번지의 상징적인 팔각 별을 뜻하는 8개의 캡터로 구성했다. 불가리는 이번 헤리티지 컬렉션을 통해 불가리의 '영원한 재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

특별한 만남

불가리는 창립 140주년과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동시에 맞이하는 것을 기념하고자 이번 헤리티지 컬렉션 전시에 특별한 아트 작품을 추가했다. 이에 도움을 준 뮤지엄한미는 20여 년 전 한국 문화 예술 발전과 사진 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한국 최초의 사진 전문 미술관으로 시작해 원

“**광대한 우주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우연 속 만들어지는 원석, 그리고 이를 재창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표현했다**”
by 이용철 작가

로 사진가부터 동시대에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업을 두루 탐구하고 소개하며 한국 사진 예술의 국제적 진흥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해온 곳이다. 그 일환으로 불가리와 협업하며 사진 매체의 확장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작품과 미디어 아트 작업을 하는 한국 현대 예술가 3인을 선정했다. 배찬호·이갑철·이용철 작가가 그 주인공. 이 작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번 전시의 테마인 '영원한 재탄생'을 작품에 담아냈다. 이 전시를 기획한 뮤지엄한미 삼청의 시니어 큐레이터 김지현과 불가리 헤리티지 큐레이터 지슬랭 오크레망(Gislain Aucremann)은 불가리 헤리티지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아 독창적인 시선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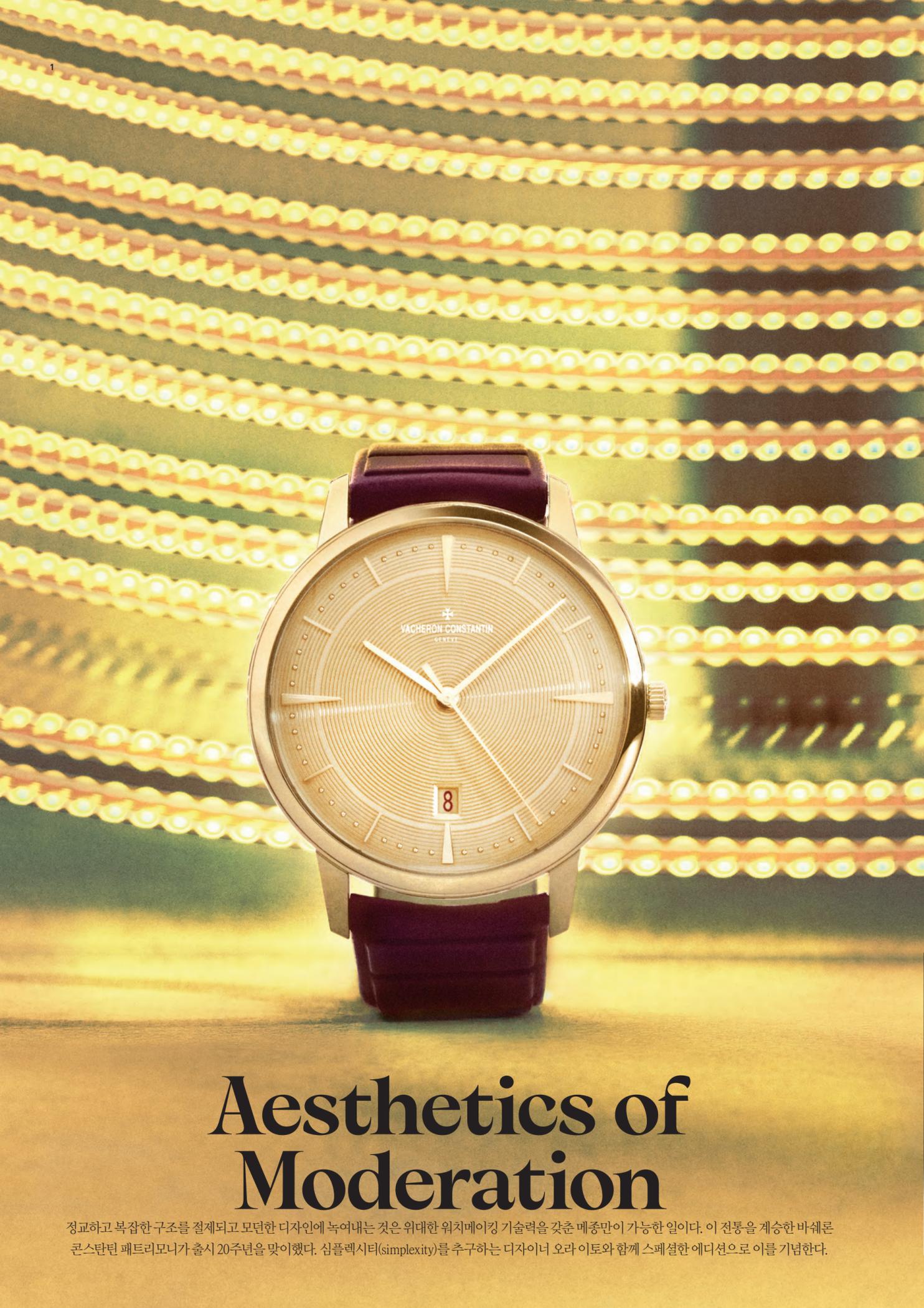


로 그려낸 작업들을 오감을 통해 공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듯 물결치는 터널에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작가들의 작품은 단독 공간에 전시되어 있어 높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더불어 불가리 헤리티지 컬렉션 전시로 이어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동화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배찬호 작가는 서양 사회에서 동양 남자로서 느끼는 소외를 사진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더불어 종교에서 신을 숭배하는 공간인 제단을 만들어 이를 통해 부여되는 절대성을 경험해볼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전시에도 역시 자궁을 주제로 한 독특한 설치미술 작품을 통해 불가리가 탄생한 곳이자 서양 문물의 근원인 로마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갑철 작가는 한국 구석구석을 다니며 삶에서 느끼는 감정과 끈질긴 생명력을 사진에 붙여넣고자 하는 사진가로 이번 전시에서는 불가리의 근원인 로마의 다양한 모습을 흑백 필름에 표현했다. 은은한 동시에 강렬한 로마의 모습을 통해 영원한 재탄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미디어 아트를 전개하는 이용철 작가는 주얼리가 완성되기 전 단계를 '돌'에 주목했다. 어쩌면 주얼리와 연관되어 있을지 모르는 연금술의 개념에서 시작해 사소

1 1989년 출시한 불가리 네크리스. 2 불가리 1989년 헤리티지 컬렉션 이어링. 3 배찬호 작가의 작품 전시 공간. 4 이갑철 작가의 '로마' 작품 전시 공간. 5 전시장에 걸려 있는 불가리 헤리티지 캠페인 사진들. © Baptiste Olivier. 6 불가리 헤리티지 피스를 전시한 공간. 7 이용철 작가의 '현자의 돌: 최초의 사물' 전시 공간. 8 1989년 선보인 불가리 부나토 탁상시계. 9 불가리 모넬레 투보가스 초커.

한 돌이 아름다운 주얼리로 재탄생하는 데서 영감을 받은 것. "어떤 역사가 담겨 있는지 생각하며 우주와 무한대를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쫓았을 때 남는 최소한의 입자 개념을 뜻하는 모나드(monad)를 떠올렸습니다"라고 작가는 말한다. 작가 3인의 전시를 관람한 후에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불가리에서 어렵게 공수한 불가리 헤리티지 컬렉션 중 23개의 주요 마스터피스를 실제로 관람할 수 있다. 로마 주얼리 불가리의 헤리티지 컬렉션과 한국 현대 예술가들이 창조한 작품의 특별한 만남이자 아름다움의 근원을 향한 여정 <영원한 재탄생: 아트와 주얼리, 로마의 영감을 찾아서>는 2024년 11월 3일까지 개최되며,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불가리와 뮤지엄한미 공식 홈페이지 및 브랜드의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 전시를 통해 로마 주얼리 불가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류의 근원과 동서양의 만남으로 끊임없이 재탄생되는 영원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을 것이다. 문의 02-6105-2120 에디터 성경민





Aesthetics of Moderation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를 절제되고 모던한 디자인에 녹여내는 것은 위대한 위치메이킹 기술력을 갖춘 메종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 전통을 계승한 바쉐론 콘스탄틴 패트리모니가 출시 20주년을 맞이했다. 심플렉시티(simplicity)를 추구하는 디자이너 오라 이토와 함께 스페셜한 에디션으로 이를 기념한다.



1950년대는 슬림한 디자인만큼이나 아름다운 구조를 선보이는 탁월한 위치메이킹 칼리버들이 탄생한 시기다. 마침 1955년 메종 창립 200주년을 맞이한 바쉐론 콘스탄틴은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얇은 무브먼트인 두께 1.64mm의 칼리버 1003을 선보인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이들 세계에서 영감받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4년 역사적이고 아이코닉한 위치인 패트리모니(Patrimony) 컬렉션을 출시한다. 전통적인 위치메이킹을 바탕으로 태어난 이 컬렉션은 복잡한 기술력을 절대 과시하거나 걸음으로 드러내지 않는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우아함을 보여준다. 20년간 패트리모니는 라운드 케이스와 슬림한 베젤, 세련된 돔형 다이얼, 슬림한 곡선형 아워 마커, 바통형 곡선 핸즈, '펠' 미닛 트랙 등 상징적인 디자인을 원칙으로 삼아 아이코닉함을 유지해왔다. 이는 심플함에 정교한 위치메이킹 기술력을 담기 위한 바쉐론 콘스탄틴의 하이 위치메이킹 메커니즘과 모던함의 미학이라는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24년 현재, 시대를 초월한 절제미가 담긴 디자인과 위치메이킹 철학을 관통하는 심플렉시티(simplicity)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오라 이토와 협업해 특별한 패트리모니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1 올해 패트리모니 출시 20주년을 맞이해 디자이너 오라 이토와 협업해 선보인 리미티드 에디션 워치.
2 시대를 초월한 절제미가 담긴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3 볼 수 없이 많은 동심원으로 장식한 골드 컬러 다이얼이 조화를 이루어 특별한 빛을 발한다. 4 극강의 슬림함을 자랑하는 패트리모니의 셀프 와인딩 칼리버 2450 무브먼트의 모습.

이번에도 역시 바쉐론 콘스탄틴과 협업하면서 시대를 초월하는 패트리모니 컬렉션의 절제미에 주목했다. 특별함을 담기 위해 선택한 컬러 차트 또한 골드다. 오라 이토는 지름 40mm의 케이스부터 다이얼, 아워 마커, 미닛 트랙, 핸즈까지 전부 옐로 골드를 사용해 톤온톤의 세련됨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디테일을 가미하기 위해 다이얼에 셀 수 없이 많은 동심원을 적용했다. 이는 골드의 반짝임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며 핸즈가 동심원을 따라 흐를 때마다 고급스러운 광채를 뽐내준다. 6시 방향에는 톤온톤 표시창에 은밀하게 나타나는 테이트와 사파이어 크리스털 아래 메탈 전사로 구현한 바쉐론 콘스탄틴 로고 같은 다양한 디테일을 배치해 섬세한 빈티지 감성을 더했다. 사파이어 크리스털 케이스 백을 통해 시, 분, 초를 표시하는 인하우스 셀프 와인딩 칼리버 2450을 감상할 수 있으며, 원형 그레인 기법을 적용한 메인 플레이트, 코트 드 제네바 패턴으로 장식한 브리지, 말테 크로스가 돋보이는 오픈워크 골드 로터 같은 하이 위치메이킹 마감 기법 역시 적용했다. 각진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한 직사각형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버진디 카프 스킨 스트랩은 케이스와 다이얼에서 볼 수 있는 원형의 기하학적 모티프와 대비를 이루며 한층 더 고급스럽고 빈티지한 무드를 선사한다. 오라 이토와 협업해 완성한 패트리모니 컬렉션은 단 1백 피스 리미티드 한정 피스로 선보인다. 바쉐론 콘스탄틴 패트리모니를 사랑하는 시계 애호가라면 이 특별한 위치를 절대 놓칠 수 없을 것이다. 문의 1877-4306 에디터 **성정민**



“ 좋은 디자인이란 사용 기간이 끝나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유지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완성된다 ”

by 오라 이토(Ora-ito)

Autumn Classic

랄프 로렌에서 우아한 여성과 품격 있는 남성에게 제안하는 가을 룩.



- 1 랄프 로렌 퍼플 라벨 시어링 보머 재킷 8백만원대.
- 2 브리시 더블 페이스 울 원단으로 제작한 랄프 로렌 퍼플 라벨 웰링턴 코트 1천5백만원대.
- 3 더블 페이스 캐시미어 소재의 레오나르다 랩 코트 8백만원대.
- 4 랄프 로렌 컬렉션 캐시미어 블렌드 도네갈 카디건 4백70만원.

또 다른 느낌으로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랄프 로렌의 최상위 여성 럭셔리 라인인 랄프 로렌 컬렉션에서도 우아한 여성들을 위한 코트와 카디건을 선보인다. 먼저 레오나르다 랩 코트는 이번 2024 폴 시즌에 선보이는 코트로 이탈리아에서 직접 수작업으로 제작했다. 더블 페이스 캐시미어를 사용해 탄탄하면서도 캐시미어만의 부드러운 질감이 고급스럽고 우아한 실루엣을 완성한다. 여기에 아이코닉함을 더하는 랩 스타일이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한다. 조금 더 캐주얼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을 원한다면 캐시미어 블렌드 도네갈 카디건을 추천한다. 오버사이즈 칼라와 랩 스웨이드 소재의 버클 클로저로 개성 있는 스타일을 선보이며, 사랑스러우면서도 여성스러운 무드를 선사한다. 도네갈 캐시미어 원사에 헨드 니팅 기법으로 완성해 더욱 코지하고 따뜻한 감성을 전하고, 저지 스티치 스타일로 디자인적 디테일을 가미했다. 역시 이탈리아에서 정교한 장인 정신으로 제작해 고급스러움이 돋보인다. 올 가을과 겨울은 랄프 로렌 퍼플 라벨과 랄프 로렌 컬렉션으로 우아하고 품격 있는 스타일을 연출해봐도 좋을 듯하다. 문의 02-3467-6560(랄프 로렌 컬렉션), 02-3438-6235(랄프 로렌 퍼플 라벨) 에디터 성정민



가을, 겨울에는 좋은 소재를 사용해 잘 만든 아우터 하나면 충분하다. 이를 위해 랄프 로렌 퍼플 라벨과 랄프 로렌 컬렉션에서 각각 남성과 여성을 위한 F/W 아우터 룩을 제안한다. 먼저 랄프 로렌의 최상위 남성복 라인인 랄프 로렌 퍼플 라벨에서 격식 있게 연출하기 좋은 코트와 캐주얼한 매력을 더하는 보머 재킷을 출시해 스타일리시한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보기만 해도 구조적이고 각 잡힌 실루엣으로 매력을 더하는 웰링턴 코트는 이탈리아 최고의 아틀리에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했으며, 랄프 로렌 퍼플 라벨 헤버대셔리의 엄격한 기준과 전통 기술을 적용해 완성했다. 1930년대 그레이트 코트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스트러처가 잡힌 코트의 필수 요소를 갖추었으면서도 놀랍도록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 것이 특징이다. 덕분에 고급 슈트 위에 편안하게 매치할 수 있으며, 캐주얼한 복장 위에도 웨어러블한 연출이 가능하다. 천연 혼 버튼으로 마무리하고 랄프 로렌 퍼플 라벨을 위해 맞춤 개발한 브리시 더블 페이스 울 원단으로 제작했다. 추가로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은 시어링 보머 재킷이다. 미 서부의 멋스럽고 우아한 남성성의 모습이 떠오르는 랄프 로렌 퍼플 라벨의 아이코닉한 보머 재킷 디자인으로 칼라 스탠드에 랄프 로렌 디보싱 디테일이 돋보인다. 리브 조지 커프스, 스웨이드 지퍼와 천연 혼 버튼으로 마무리했다. 빅 부분의 시어링 디테일은 개성 있는 룩을 연출해주는 동시에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따뜻함을 유지해준다. 역시 캐주얼한 연출은 물론 슈트에 매치해도



(위부터 차례대로) 스트랩을 제공해 숄더백으로 착용할 수 있으며, 토트백으로 착용하면 스트리트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 폭신한 가죽으로 제작한 로고 버튼 디테일의 나파 레더 소재 호간 뱀뱀 숄더백 90만원. 도시적인 감성을 자아내며 뒷면에 몬테 나폴레오네 거리 주소 로고를 프린팅한 나일론 트릴 소재의 호간 유니섹스 리버시블 보머 재킷 1백2만원 모두 호간



(위부터 차례대로) 1980년대 육상 경기 아이콘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측면의 상징적인 몬테 나폴레오네 거리 주소 디테일이 특징이다. 유니섹스 디자인으로 출시되어 남녀 커뮤 스니커즈로 신을 수 있는 스웨이드와 레더 소재의 호간 86er 스니커즈 각각 65만원 모두 호간

Urban Sportive

기능성은 물론 우아함과 현대적인 무드까지 겸비한, 남다른 호간의 스타일링.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위부터 차례대로) 전형적인 테니스화를 플랫폼화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측면의 로고로 포인트를 준 호간 여성 스카이스크래퍼 스니커즈 75만원. 미니멀한 스타일의 가벼운 아웃솔이 특징이며, 메모리폼 인soles를 갖추어 우수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스웨이드와 레더 소재의 호간 남성 H-TV 스니커즈 70만원 모두 호간



1986년 어디서나 음악을 들려주던 휴대용 퓌박스를 연상시키는 모델로 날카로운 디자인을 유려한 곡선으로 마무리한 것이 특징이다. 아주 부드러운 나파 레더를 사용해 폭신한 촉감을 선사하는 호간 뱀뱀 호보 백 68만원 호간 문의 05-540-0523 에디터 윤자경

WOOL JACKET

(왼쪽부터 차례대로) for WOMEN 남성 컬렉션의 아이코닉 아이템을 패미닌한 실루엣으로 재해석한 버진 울, 캐시미어 혼방 소재의 미니 로드스터 재킷 6백40만원대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for MEN, 레더 칼라를 댄트 오버사이즈 핏의 세브론 울 재킷 9백50만원대 **프라다**, 문의 02-3442-1830 시그니처인 브라스 하드웨어로 장식한 쿼터 패들 카프 스킨 더블백 6백65만원 **랄프 로렌 퍼플 라벨**, 문의 02-3438-6235



DENIM JUMPER

(왼쪽) for WOMEN 장식적인 디테일과 견고한 실루엣이 어우러진 캐시미어 데님 소재의 코랄리(Coralie) 트러커 재킷 5백60만원대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오른쪽) for MEN, 시어링 칼라로 포인트를 준 집업 스타일의 데님 트러커 재킷 4백20만원대 **토즈**, 문의 02-3438-6008, 골드 피니시 원형 힐이 아름다운 다-아이돌(D-idole) 앵클부츠 2백63만원 **디올**, 문의 02-3480-0104



Best for Now

단 하나만으로 잘 갖춰 입은 듯 우아한 스타일을 완성해줄 가을 아우터 셀렉션.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TAILORED LEATHER

(왼쪽) for WOMEN, 특수 건조 처리한 가죽 위로 여러 색상을 수작업으로 레이어드해 고급스러운 빈티지 스타일을 완성한 토마스 디스트레스드 레더 재킷 6백40만원 **랄프 로렌 컬렉션**, 문의 02-3467-6560 (오른쪽) for MEN, 짙은 버건디 컬러가 인상적인 싱글브레스트 레더 재킷 가격 미정 **페라기모**, 문의 02-3430-7854



TRENCH COAT

(왼쪽) for WOMEN, 라펠에 독특한 지퍼 디테일을 더해 투 웨이로 연출 가능한 캐주얼 무드의 트랜치코트 가격 미정 **버버리**, 문의 080-700-8800 (오른쪽) for MEN, 수작업으로 그려 넣은 듯 은은한 멀티컬러 노트 패턴 프린트가 감각적인 루스 핏 트랜치코트 가격 미정 **보테가 벤테타**, 문의 02-3438-7682 객원 에디터 **이혜미**



Heel So Chic

밀라노의 매혹적인 슈즈 브랜드 '베네데타 보롤리(Benedetta Boroli)'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한다.

Interview

베네데타 보롤리, 한국과 사랑에 빠지다

Q1. 한국에 베네데타 보롤리를 소개하게 된 소감이 어떤가. 나의 서울 여행은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탐구해야 하는 시기에 우연히 이루어졌다. 네 번의 방문을 통해 한국의 가치관이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것이 한국이 나에게 그토록 의미 있는 곳이 된 이유다. 한국은 곧 내가 누구인지를 반영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라고 믿기에, 이곳에서 베네데타 보롤리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설렌다.



1 모델 못지않은 비주얼로 BB의 제품이 더욱 멋스럽게 어울리는 베네데타 보롤리, 브랜드 창립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CEO를 겸하고 있다. 2 스포르차 펄프 슈즈의 스케치. 3 예지 있는 힐이 눈길을 사로잡는 앰버 엘리펀트(Amber Elephant). 4 (왼쪽부터 차례대로) 카도르나 헤이즐릿, 에드나 홀, 클라라 보르도(Clara Bordeaux).

Q2. 이번엔 한국에서 스니커즈 '우리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계기 및 디자인 영감은?' 유니섹스 아이템으로,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선보인다. 요즘은 젊은 세대가 주가 되어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리고 이 흐름에 맞춰 베네데타 보롤리가 선사하는 편안한 착용감을 알려주고 싶어 운동화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동시에 BB의 우아한 성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기에, 스니커즈 '우리를 통해 내가 처음 디자인으로서 선보인 스포르차(Storza)와 카도르나(Cadoma)를 오마주해 네오프렌, 메시와 가죽, 페이턴트, 나뭇잎 결합 등 해당 모델의 시그니처 요소를 스니커즈에 담았다.

Q3. 한국 고객들에게 가장 소개하고 싶은 제품 세 가지를 꼽자면? 가장 애착을 갖는 제품 중 하나인 에드나(Edna) 앵클부츠. 시그니처 웨지 힐 덕분에 우리 브랜드를 많이 알릴 수 있었으며, 특별한 힐 디자인으로 하루 종일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 그리고 카도르나 발레 플랫과 좀 더 스포티한 버전인 브레라(Brera) 스니커즈에도 BB만의 특색이 반영되었다.

Q4. 신었을 때 오랫동안 발이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고유의 제작 노하우가 있는지? 편안함은 베네데타 보롤리만의 강점이기도 하다.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제조 공정에 힘이 있다. 가장 첫 번째 팀은 부드러움과 가벼움을 선사하는 패딩 처리 깔창 패드다. 그리고 높이와 편안함을 모두 제공하도록 고안한 아이코닉한 웨지 힐이 있다. 높은 힐은 불편하다는 편견을 깨기 위한, 아래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디자인의 웨지 힐을 통해 가벼운 발걸음을 선사한다.



“여행은 저의 가장 큰 열정이자 창의성의 표현입니다.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고, 박물관을 방문하고, 자연 속을 걷는 것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by 베네데타 보롤리

장인 정신으로 빚어낸 슈즈

1901년부터 인쇄업과 미디어, 식품, 의학까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이탈리아 노바라의 대표 가족 기업으로 잘 알려진 '데 아고스티니', 이 그룹은 보롤리 가문이 이끌고 있는데, 보롤리 가문의 3녀 중 첫째가 바로 베네데타 보롤리(Benedetta Boroli)다. 그녀는 집안 전통에 따라 가톨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어서 뉴욕 컬럼비아대학에서 학위를 마친 후 돌아와 오랫동안 품어온 꿈을 펼쳤다. 그것은 자신만의 구두 브랜드를 만드는 것.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구두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그녀를 다시 밀라노의 ARS 학교로 이끌었고, 결국 그녀는 구두 디자인에 관한 특별한 학위를 취득하고 자신만의 슈즈 브랜드 '베네데타 보롤리'를 론칭했다. 자기만의 스타일을 시대에 접목하며 트렌드에 구애받지 않는 브랜드를 전개해나가겠다는 그녀의 굳은 의지는 브랜드명에서 그녀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에서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베네데타 보롤리는 전 세계 소비자에게 BB라는 애칭을 얻어 큰 사랑을 받게 된 것이다. BB의 제품은 '높은 퀄리티, 매혹적인 디테일, 편안함'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장인 정신과 세심한 디테일 세공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럭셔리 브랜드의 생산지로도 잘 알려진, 밀라노 북쪽의 파라비아고에서 생산된다. 그리고 지구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지원하는 최전선에서 노력하기에 2020 S/S 컬렉션부터 포장재에 지속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며, 브랜드가 숲, 동물 및 이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FSC 로고를 모든 베네데타 슈즈 박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토록 장인 정신에 기반한 퀄리티, 메이드 인 이탈리아, 구조적이며 획기적인 디자인,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성 등을 충족하는 완벽에 가까운 슈즈를 찾는다면 베네데타 보롤리가 확실한 대안이 되어줄 것이다. 베네데타 보롤리는 밀라노를 기반으로 뉴욕, 캘리포니아, 중동에 이어 서울을 찾아 팝업 스토어를 연다.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분더샵 청담에서 팝업으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으며, 10월 18일부터 2025년 3월 2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센텀시티점에서 구매도 할 수 있다. 문의 www.benedetaboroli.com

에디터 윤자경

Benedetta Boroli F/W Collection





Dear Diva

가끔은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과장된 실루엣과 맥시멀한 디테일의 스페셜 룩.

PHOTOGRAPHED BY ZOSUNHI



(왼쪽 페이지) 핑크 컬러의
톱, 스커트, 부츠 모두
가격 미정 **릭 오웬스**.

몰디드 숄더 더블브레스트
코트 6백43만원,
에로 세이프티 핀 브로치
74만5천원 모두 **맥퀸**
by **선 맥기르**.



세컨드 스킨 핏 니트 보디
수트 1백92만원, 버블
니트 퍼 미니스커트
3백83만9천원, 버블 니트
퍼 컷트 2백61만9
천원 모두 알라리아.

소프트 슬리브 시어 울 니트 보디 수트
1백72만9천원 알라리아. 니트 드레스,
글러브 모두 가격 미정 CFCL by
10 꼬르소 꼬모 서울, 브라운 컬러
카프 스킨 부츠 3백만원대 펜디.



프린지 디테일을 더한 플루이드 비스코스
오간자 크레이프 소재 드레스
1천6백28만5천원, 루이스 펌프스
1백98만원, 골드 컬러의 네크리스
가격 미정 모두 **보테가 베네타**.



트위드 소재의 재킷, 울 트위드
소재의 팬츠, 메탈 & 글라스 펄 &
스트라스 초커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플카 도트 패턴의 무시 보타이 실크
오간자 자카드 블라우스 5백40만원,
올 개버딘 테일러드 턱시도 팬츠 1
백86만원, 실크 새틴 커머밴드 1
백4만원 모두 돌체앤가버나.



스팽글 장식의 보머 재킷,
플라워 레이스로 이루어진
이브닝드레스, 크리스탈 체인
디테일의 그레이 페이턴트 슬랑백
펌프스 모두 가격 미정 구찌.

헤어 마준호
메이크업 이아영
모델 박화정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샤넬 080-805-9628
보테가 벤테타 02-3438-7682
구찌 02-3452-1921
맥퀸 by 셀 맥기르 02-6105-2226
돌체앤가버나 02-3442-6888
릭 오웬스 02-6905-3578
켈디 02-544-1925
일라이아 02-6905-3578
CFCL by 10 코르소 꼬모 서울 1599-0007

Keep it Tight

수분 충전은 기본, 늘어진 피부 탄력 케어에도 탁월하다. 환절기 스킨케어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안티에이징 세럼. PHOTOGRAPHED BY PARKJAEYONG

(위부터 차례대로) 발몽 브라리프트 세럼
 브랜드 고유의 드론 펩타이드 기술을 도입해 피부 주름 완화에 유효한 성분을 집중적으로 전달한다. 여기에 고보습 성분인 트리플 DNA, 주름 케어에 효과적인 바쿠치올과 레티 부스트 등 자연 유래 성분을 추가해 피부 자극 없이 주름 케어 효과를 배가했다. 30ml 42만원. 문의 070-4352-5203
 시세이도 퓨처 솔루션 LX 인텐시브 피밍 브릴리언스 세럼 피부 회복 효과가 뛰어난 엔메이 허브와 브랜드 기술력의 집약체인 롱 제네비티 콤플렉스™가 만나 피부 깊숙이 수분과 영양을 채워 근본적인 탄력과 광채를 선사한다. 50ml 43만원. 문의 080-564-7700
 샤넬 수블리마지 액스트레 드 로씨용 수천 개의 마이크로 버블 텍스처가 특징. 이 버블 안에 피부 보호에 도움을 주는 바닐라 플라나폴리아와 리페어에 탁월한 히말라야산 스웨티아 추출물을 담았는데, 밤사이 피부 광채와 수분감을 한껏 끌어올려준다. 세안 후 가장 먼저 사용할 것. 125ml 44만5천원. 문의 080-805-9638
 디올 프레스티지 라 마이크로 펩 드 로즈 액티베이트드 세럼
 로즈 드 그랑빌은 4만여 종의 장미 중 선택받은 장미로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디올의 최첨단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기술력까지 더했으니 피뭉겔 케어도 기대할 수 있을 듯. 50ml 54만6천원대. 문의 080-342-9500
 콜레드보 보메 더 세럼 II 중전 대비 기술력과 성분, 제형 등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다. 먼저 스킨 임팩워링 일루미네이터 성분이 피부를 환하게 밝히고, 스킨 인텔라전스 테크놀로지가 최상의 피부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흡수력을 높여주는 셉트 스프레딩 포뮬러 텍스처도 장점. 50ml 34만5천원대. 문의 080-564-7700
 뽀아레 인퓨지옹 데네르지 스킨케어의 시작을 알리며 그다음 단계의 흡수를 돕는 퍼스트 세럼. 브랜드 독자 성분인 레네르지 콤플렉스를 적용해 수분 장벽을 강화하며, 특히 환절기에 피부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준다. 40ml 26만원. 문의 02-310-5025
 객원 에디터 김하얀



The Smartest, STOP VX2

기존에는 만나볼 수 없었던 궁극의 뷰티 디바이스가 탄생했다. 세 가지 멀티 고주파(Multi RF)와 어댑티브 DMA 기술을 적용한 트리폴라의 스태프 바이엑스2(STOP VX2)로 완성하는 4주간의 기적, 완벽한 V 라인.



가드니아 코리아가 58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의료 장비 회사 루메니스(Lumenis) 산하의 폴로젠(Pollogen)이 특허 기술로 완성한 브랜드, 트리폴라(Tripollar)를 한국에 론칭했다. 가드니아 코리아는 지난 15년 동안 이스라엘 인모드 장비 회사의 가정용 디바이스 브랜드 실콘을 한국에서 운영해왔는데, 실콘이 네덜란드 회사에 매각되면서 더 이상 기술력을 보장받지 못해 더 뛰어난 원천 기술을 지닌 트리폴라를 론칭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루메니스는 세

계 최초로 의료용 IPL(Intense Pulsed Light) 기술을 개발했고, 의료용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피부과, 안과, 외과 등 의료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2백20여 개 이상의 특허와 다수의 FDA 승인을 받아, 전 세계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쌓아왔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게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부 미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용 미용 디바이스에 최초로 고주파 기술을 적용한 트리폴라를 탄생

1 스태프 바이엑스2는 세 가지 고주파 주파수가 진피층에 깊고 고르게 작용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생성한다.
 2 이스라엘 폴로젠의 트리폴라 방식을 적용한 RF 의료 장비 맥시무스(Maximus), 일반적인 고주파 시술과 다르게 SMAS층을 공략해 기존 고주파 리프팅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보여준다.

시켰다. 이처럼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인정받은 기술력이 응축된 트리폴라에게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 트리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tri', 즉 3개라는 뜻과 'polar'라는 양극의 의미가 합쳐졌다.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주파 기술인 모노폴라나 바이폴라 방식이 아닌 특허 받은 다중 양극의 '트리폴라(Tri-polar)' 방식을 사용해 더 집중적으로 피부 진피의 콜라겐을 생성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트리폴라가 궁극의 뷰티 디바이스, '스태프 바이엑스2(STOP VX2)'를 선보인다. 특허 받은 세 가지 주파수의 고주파 주파수(0.85·0.1·1.15MHZ)로 피부 진피층에 깊고 고르게 작용해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를 생성해 탄탄하게 가꿔준다. 여기에 특허 개발한 DMA(Dynamic Muscle Activation) 기술로 섬유 근막층(SMAS층)을 3분 동안 1천 회 자극해 턱선을 날렵하게 관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아울러 티보 고주파 기술로 무려 35초 안에 콜라겐이 생성되는 온도에 도달해 빠르고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열 매핑 기술이 피부에 가장 적합한 온도를 제공해 최적의 결과와 맞춤형 관리를 도와준다. 또 최적의 온도에 도달하면 '삐' 소리와 함께 주황색 표시등이 꺼지고, 차단되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고주파 모드를 사용할 때는 얼굴 전체 부위별로 3~4분 동안 원을 그리듯 사용하고, 고주파와 DMA 모드를 사용할 때는 턱 라인에만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된다. 디바이스는 단 94g의 가벼운 무게로 매일 사용해도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피부 접촉 부위는 의료용 스테인리스 스틸 전극으로 완성해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특히 디바이스는 설명보다는 눈에 띄는 효과가 꾸준히 사용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법이다. 스태프 바이엑스2는 4주 사용 후 팔자 부위 63%, 이마 볼륨 84%, 볼 볼륨 84% 개선이 임상 시험을 통해 확인됐다. 무엇보다 에디터가 실제로 사용했을 때 그 어떤 디바이스보다 확실하게 관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기존 고주파 방식에서 업그레이드된 다중 양극의 트리폴라 기술을 사용한 고주파 에너지는 피부 깊숙이 전달되어 더욱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했다. 얼굴에 노화 징후가 보일 때마다 어김없이 꺼내 들게 되는 뷰티 디바이스, 스태프 바이엑스2다. 문의 080-246-1234
 에디터 윤자경

Editor's Pick

환절기에도 피부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케어해줄 이달의 뷰티템 12.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OH HYEUN SANG

(왼쪽 위부터 차례로) 로라 메르시에 캐비어 퍼펙팅 립 라이너 O4 엘레강트 블러쉬 최대 16시간 유지되는 지속력과 발림성이 좋은 워터프루프 제품이다. 버터처럼 부드러운 텍스처로 비타민 E와 B₅, 히알루론산 성분이 수분 장벽을 보호해 촉촉하고 빛나는 입술을 연출해준다. 누디한 핑크 베이지 컬러라 본연의 입술색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1.1g 4만 5천원대.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신정민

메이크업 포에버 HD 스킨 컨실러 코렉팅 0.1 스킨 케어 성분을 함유해 촉촉하고 얇게 스며드는 것은 물론 핑크 톤의 밝은 컬러와 은은한 반짝임으로 중요 부위에 하이라이트를 주거나 칙칙하고 어두운 피부 톤을 한 톤 더 밝히는 데 유용하다. 하이라이터의 강한 필감이 부담스럽다면 코와 광대 쪽에 살짝 발라 광채 메이크업에 도전해볼 것. 4.7ml 4만 5천원대. 문의 080-514-8942 _by 에디터 성정민

러쉬 보디 스프레이 스티키 데이트즈 하루 종일 달콤하면서 우디한 향을 선사하는 보디 스프레이. 캐롭검, 안식향나무, 샌들우드가 어우러져 처음에는 달달한 바닐라 시럽 향이 나타나 시간이 지날수록 샌들우드 향이 은은하게 나서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좋다. 200ml 7만원대. 문의 1644-2357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템버린즈 쉘 퍼퓸 핸드 이브닝글로우 손이 자주 터서 수시로 핸드크림을 발라주는 편, 여기에 컬러가 그레이데이션된 유니크한 패키지 디자인으로 에디터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부드러운 크림 텍스처로 가볍게 흡수되며 노을에 물든 듯한 짐미와 달달한 라즈베리, 상큼한 레몬 향이 매력적이라 이미 촉촉해진 손에도 자꾸만 덧바르게 된다. 30ml 3만 2천원. 문의 1644-1246 _by 에디터 신정민

폴라초이스 클리니컬 프로 레티날 트리트먼트 노화 징후에 효과적인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여러 개 써보았지만, 이 제품만큼 순하고 흡수가 잘되는 제품은 찾지 못했다. 레티날 성분에 캡슐화 기술을 적용해 빛과 고온에도 오래도록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피부 잔주름과 잡티가 완화된 듯하다. 30ml 9만 8천원. 문의 1661-6656 _by 에디터 윤자경

시슬리 수프리미아 옛 나이트 더 수프리 안티-에이징 아이 크림 눈가에 자주 출몰하는 비립종 때문에 아이 크림 사용을 꺼렸다. 그러나 이 제품은 약하고 얇은 눈가 피부에 최적화된 포몰러로 특별히 제작된 듯. 무엇보다 함께 구성된 마사지로 한번 쓸어주면 속 흡수되면서 눈가가 바로 또렷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ml 46만원. 문의 080-549-0216 _by 에디터 성정민

통 포드 뷰티 아이 컬러 워드 로즈 베일 이면에 통 포드 뷰티 아이샤도 컬러가 아주 웨어러블하게 구성되어 출시되었다. 시즌에 딱 어울리는 마른 장미빛 컬러에 음영을 줄 수 있는 브라운, 반짝이는 샴페인과 진주빛 핑크 토파즈 컬러까지. 이 팔레트 하나면 올가을 아이 메이크업은 걱정 없을 듯. 7g 13만 5천원대. 문의 02-6971-3211 _by 에디터 성정민



맥 글로우 플레이 텐더토그 립밤 #비온드 데일리 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 립밤. 평소 컬러 립밤을 사용하면 금방 건조했는데 이 제품은 시아버더, 호호바, 해바라기 오일 성분을 함유해 24시간 수분을 채워주면서 본연의 색상에 따라 은은하게 물들어 촉촉하고 생기 가득한 입술을 연출해준다. 3.14g 3만 8천원대. 문의 1644-3748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구찌 뷰티 플로라 골저스 오이드 오 드 퍼퓸 상상력, 자유, 여성성에 대한 키워드를 모티브로 구찌 플로라 컬렉션에서 새롭게 선보인 향. 구어머드 향에 바닐라를 살짝 더해 달달하면서도 무겁지 않고 산뜻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은은하게 감싸 안는 마린 노트가 시원한 느낌을 선사한다. 만개한 꽃 패턴으로 완성한 노란색 보틀이 화사함을 더해줘 인테리어 장식품으로도 제격. 100ml 26만 4천원. 문의 080-850-0708 _by 에디터 신정민

클라라스 프레스쉬 윌 잉 세럼 밤사이 피부를 눈부시게 가꿔주는 나이트용 오일 캡션 세럼으로, 안색이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는 날 찾게 되는 아이템이다. 문라이트 플라워와 3종 펩타이드, 강력한 리바이탈라이징 효과를 지닌 몬스토 하이드레이티드 실리카를 함유해 피부에 생기를 되찾아준다. 30ml 38만원. 문의 080-542-9052 _by 에디터 윤자경

둘레엔가바나 뷰티 치크 앤 아이 매치 블러셔 #03 호프플 로즈 불과 눈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치크 앤 아이 매치 블러셔. 환절기라 피부가 건조해져 화장이 뜨끈 하는데 이 제품은 파우더 타입으로 피부가 수분을 머금도록 도와준다. 덕분에 컬러가 하루 종일 유지되어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에 제격이다. 8g 6만 8천원대. 문의 1644-4490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달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오일 캡슐 세럼 수분 마백 세럼과 비타민 캡슐이 빠르게 블렌딩되는 이중 포몰러 덕분에 피부에 수분막을 형성하고 끈적임 없는 마무리감을 준다. 또 영양 성분을 3단계에 걸쳐 나노 단위로 쪼개는 동시에 리포솜화해 피부에 편안하게 전달해 뛰어난 흡수력까지 보장한다. 100ml 5만 8천원. 문의 02-332-7727 _by 에디터 윤자경

* 상용(30대 미만), 일반(30대~49대), 전문(50대 이상), 신중(50대 이상), 피부(50대 이상), 피부(50대 이상) _by 에디터 신정민



1 **스위스퍼펙션 가을철 건조해진 피부를 위한 에센스 제안** 럭셔리 스위스 스킨케어 브랜드 스위스 퍼펙션에서 가을을 맞아 건조해진 피부를 위한 '바이탈 더 퍼스트 에센스'를 제안한다. 피부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줄 아이리스 빙하수를 담은 에센스 토너 제품으로 하루 종일 촉촉하며 밝고 화사한 피부 톤을 선사한다. 문의 1644-4490

2 **몽클레르 '러브프롬, 몽클레르' 컬렉션 출시** 몽클레르가 디자이너, 건축가, 뮤지션 등 예술가로 구성된 크리에이티브 집단 러브프롬과 만나 새로운 협업 컬렉션을 출시했다. 중앙의 코어에 연결되는 3개의 셀로 구성된 필드 재킷, 파카, 팬츠에 일관적인 단추를 재해석한 마그네틱 듀오 버튼으로 손쉽게 착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의 0030-8321-0794

3 **스와로브스키 이터니티 컬렉션 공개** 스와로브스키가 영원한 사랑을 기념하고자 이터니티 컬렉션을 선보였다. 14K 또는 18K 화이트 골드, 옐로 골드, 스텔링 실버에 최대 3개의 램프를 다이나믹으로 회전시켜 세팅해 링, 이어링, 펜던트, 네크리스 등 다양한 제품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1522-90654

4 **지방시 뷰티 르 스완 느와 세럼** 이 지방시 뷰티에서 안티에이징 아이 세럼인 '르 스완 느와 세럼'을 출시했다. 극한의 조건에서도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는 바이탈 엘지 추출물과 해수 및 갈조류 성분을 더해 안티에이징과 노화를 개선하고 탄력 있는 눈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지방시 최초로 선보이는 럭셔리 애플리케이션도 함께 제공한다. 문의 080-801-9500

5 **디티크 레 제생스 드 디티크** 팝업 디티크가 자연에 대한 예찬과 감동을 담아낸 프레이그런스 '레 제생스 드 디티크' 론칭을 기념해 성수동에서 10월 27일까지 팝업을 진행한다. 이번 컬렉션의 주제인 5가지 자연의 보물이 선사하는 향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에센스 분수와 디티크가 실현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 철학을 체험해볼 수 있는 디스커버리 테이블을 설치했다. 문의 02-3446-7494

6 **소파드 아이스 큐브 컬렉션** 소파드에서 정육면체의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모티브로 탄생한 아이스 큐브 컬렉션을 출시했다. 작은 직사각형 조각의 실루엣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링, 브레이슬릿, 이어링, 펜던트로 구성했으며 단독으로 착용하거나 레이어링해 다채로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6905-3390

7 **디올 파인주얼리 마이 디올** 디올 파인주얼리에서 마이 디올 컬렉션을 출시했다. 디올의 아이코닉한 갠나주를 모티브로 삼아 옐로 골드, 로즈 골드, 화이트 골드의 단색 또는 색깔이 다른 2가지 배색 버전의 링, 이어링, 브레이슬릿으로 선보였으며 세련되고 모던한 스타일이 특징이다. 문의 02-3280-0104

8 **샤넬 뷰티 알튀르 옴므 스포츠 슈퍼제라** 샤넬 뷰티에서 '알튀르 옴므 스포츠 슈퍼제라'를 출시했다. 기존 알튀르 옴므 스포츠의 우디 시그니처를 재해석한 향수로 투명한 스모크 글라스 보틀이 강인함과 가벼움의 균형을 이루며 상큼한 시트러스와 목직향 우드 엠버, 그리고 포근한 머스키 향이 조화를 이룬다. 문의 080-805-9638

Show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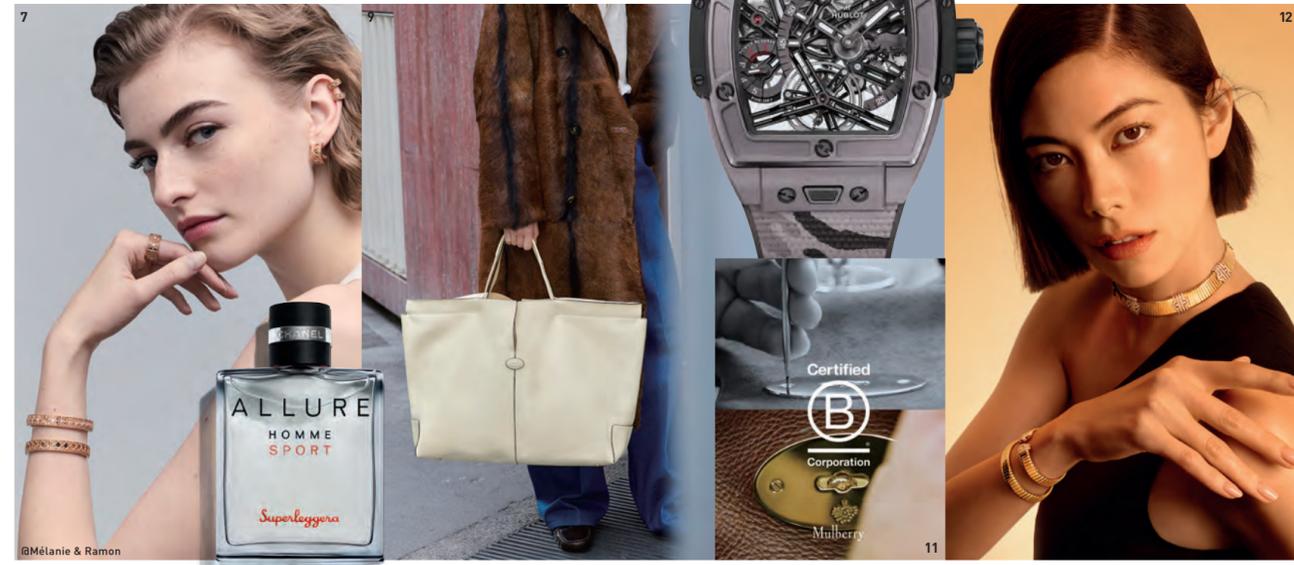


9 **토즈 다이아 폴리오 백**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토즈가 2024 F/W 시즌을 맞아 다이아 폴리오 백을 선보였다. 쇼퍼 백 스타일에 패브릭만큼 가벼운 카프 스킨 레더로 완성했으며, 벨트처럼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플랫 핸들을 더해 유니크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의 02-3438-6008

10 **위블로 스프리트 오브 빅뱅 투르비옹 5 데이즈 파워 리저브 소라이** 위블로가 전 국제 크리켓 선수이자 위블로 홍보대사 케빈 피터슨이 창립한 코볼스 보호 단체 소라이와 파트너십을 맺고 스프리트 오브 빅뱅 투르비옹 5 데이즈 파워 리저브 소라이를 공개했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한 이번 신제품은 코볼스 피부의 독특한 컬러를 구현한 따뜻한 그레이 컬러의 세라믹으로 제작했으며, 5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문의 02-540-1356

11 **멜버리 비컴 인증 획득** 값 있는 소성과 제품 순환성, 그리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기업에 부여하는 글로벌 인증인 비컴(B Corp).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가족 소재를 사용하고 패션 산업에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펼치는 멜버리가 업계 평균인 80.9보다 높은 87.1점을 받으며 비컴 인증을 획득했다. 문의 02-2018-1439

12 **불가리 투보가스 주얼리 컬렉션** 하이 주얼리 브랜드 불가리에서 투보가스 주얼리 컬렉션을 공개했다. 불가리를 상징하는 투보가스 와 옐로 골드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선보였으며, 3가지 골드가 두 줄로 나선을 이루는 유연한 브레이슬릿과 브릴리언트 컷 라운드 다이아몬드 12개를 세팅한 인덱스가 포인트인 워치, 기하학적인 스타트 장식의 네크리스 등 다채로운 제품으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6105-2120



13 Mélanie & Ramon

11

12



THE PREMIÈRE WATCH
ORIGINAL EDITION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28

CHANEL